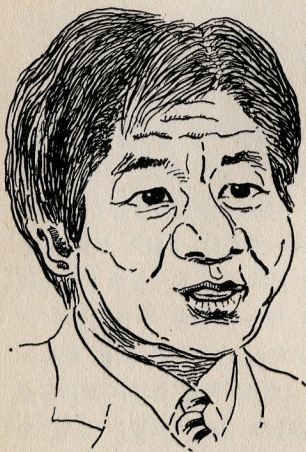


결렬 중간 평가를 불신임으로

노무현/국회의원



중간 평가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정부 여당은 중간 평가를 대비하여 제일 먼저 득표 운동을 시작하면서, 중간 평가는 신임과 연계 안 되는 단순한 정책 평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임과 연계된다는 아리송한 논리를 펴고 있다.

야당들도, 여소 야대 구조 속에서 야당의 공조 체제가 흔들린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중간 평가는 신임과 연계된 국민 투표여야 한다고 했다가, 노태우 정권이 5공 청산과 광주 학살

책임자 처벌 등 민주화의 의지를 보인다면, 단순한 정책 평가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야당이 있는가 하면, 한 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태우 씨를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 논란이 많은 부정 선거, 타락 금품 선거로 당선된 노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집권을 노리는 야당들이 중간 평가에 대해 공세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되려 움추러드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노태우 정권이 중간 평가에서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중간 평가는 노태우 씨가 대통령 선거 직전의 유세에서 밝힌 공약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올림픽 직후 6·29선언을 포함한 주요 민주화 공약 내용의 실천 여부를 심판받는 신임 연계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것은 민정당 측의 배수진 공세라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득표 전략의 하나였다. 따라서 중간 평가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국민이 불신임하면 물러나겠다는 노태우 씨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6%의 지지밖에 못 얻은 노태우 씨는 그 동안 중간 평가를 어떻게 얼렁뚱뚱 넘어갈 수 없나 고심하던데 최근에는 이것을 정권 안정의 계기로 사용하려는 공작을 펴고 있다. 노정권에게는 87년 6월 민주화 대투쟁과 7,8월의 노동자 대투쟁 이후 급격히 확대, 심화되고 있는 광범한 민중의 자주적인 진출과 이에 따른 부분적인 민주화의 확대가 독재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수 없게 하고 권력 기반이 하나하나 허물어져 가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었을 터이다.

또한 5공 비리와 광주 학살 관련 청문회에서 비리와 학살에 관련된 노정권의 본질이 여지없이 폭로되어 나가면서, 야당들의 공세와 국민들의 분노에 노정권은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부도덕한 정권이 집권욕 때문에 자행한 참혹한 학살은 결국 부정 부패물로 이어져 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그 돈들이 궁극적으로 도시 서민들의 노동자와 농민들의 아니 우리 민중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을 때,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가열차게 전개되었다. 재벌들이 독재 정권에게 갖다 바치고 온갖 특혜를 누리 돈이 바로, 노동자들에게 줄 임금 안 주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으면서 '꼬불켜 든' 돈임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확산되었고, 독재 권력과 재벌의 야합이라는 실체를 몸으로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궁지에 몰리던 노태우 씨는 특위 정국이 잠잠해진 틈을 타 작년 12월부터 폭력적인 본질을 드러내고 노동자들의 투쟁, 농민들의 투쟁에 대해 5공화국 때와 같은 공권력을 동원한 원천 봉쇄, 폭력적인 탄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니,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의 5공 비리 청산과 광주 학살 책임자 처벌이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이에 대한 면죄부로서 중간 평가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중간 평가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한뿌리이기 때문에 5공 비리의 청산과 광주 학살 책임자의 처벌이라는 범국민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노태우 정권에 대한 불신임 투쟁이어야 한다. 이것만이 노정권의 쿠데타적인 발상을 막고 5공과 광주 문제를 해결하고,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이는 독재 정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부정 부패의 여지를 제거하는 것이며 독재 정권이 발디딜 수 있는 곳을 하나하나 없애 나가는 민주화 과정이다. 그러므로 중간 평가는, 5공과 광주 문제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며 5공과 광주 문제, 민중의 인권과 생존권 탄압 등 독재의 뿌리를 뽑는 일을 국민들이 누구에게 믿고 맡길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 의지를 결여한, 아니 해결하기보다는 5공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노태우 정권을 불신임시키고, 퇴진시키는 데에 모두 한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노태우 씨도 백담사에서 전두환 씨와 같이 참회하여야 한다. 